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코로나 19 판데믹이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
 - ◇ (초점)-FOMC 결과 지켜본 국내 달러들의 고민..'인플레이션' 수준과 타이밍
 - ◇ (초점)-약달러에도 충족되지 않은 원화 강세 조건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내 중국 영사관 폐쇄 명령에 대응해 중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 작업자가 청두 소재 미국 영사관 명패를 제거하고 있다. (로이터/토머스 피터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3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91.3	0.9%	-2.9%	-3.5%	유로	1.1774	1.0%	5.0%	-2.3%
100엔 대비	1,127.3	0.4%	-5.8%	-4.4%	엔	105.88	0.2%	2.6%	0.9%
유로 대비	1,405.7	-0.4%	-8.0%	-1.3%	위안	7.0096	-0.1%	-0.7%	-1.3%
위안 대비	171.10	0.0%	-3.2%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6,428.32	-0.2%	-7.4%	22.3%
코스피	2,249.37	2.2%	2.4%	7.7%	나스닥	10,745.28	3.7%	19.8%	35.2%
코스닥	815.30	2.6%	21.7%	-0.9%	S&P500	3,271.12	1.7%	1.2%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51.63	1.7%	-0.2%	15.8%
국고채 3Y	0.796%	-0.3bp	-56.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031%	-1.8bp	-44.9bp	-40.4bp	미국채 2Y	0.109%	-4.0bp	-145.2bp	-93.7bp
국고채 10Y	1.296%	-0.9bp	-38.7bp	-26.5bp	미국채 10Y	0.533%	-5.4bp	-137.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27	-2.5%	-34.0%	34.5%	한국 5Y	22.6bp	-0.8bp	1.5bp	-17.0bp
금(현물)	1,974.69	3.9%	30.2%	18.3%	일본 5Y	17.0bp	-0.1bp	-0.7bp	-4.0bp
TR상품지수	2,354.41	0.7%	-5.3%	4.8%	중국 5Y	42.5bp	-0.7bp	11.8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월 3일(월)>

- IHS 마켓 한국 7월 제조업 PMI(09:30)

<4일(화)>

-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한은, 7/15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5일(수)>

- 한은, 7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한중일 재무 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 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6:00)

<6일(목)>

- 한은, 6월 국제수지(잠정)(08:00)

<7일(금)>

- 특이일정 없음

<9일(일)>

- KDI 월간 경제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월 3일(월)>

- 일본, 7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7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유로존, 7월 마켓 제조업 PMI (17:00)
- 미국, 7월 마켓 제조업 PMI (22:45)
- 미국, 6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7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 (23:00)

<4일(화)>

- 일본, 7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08:30)
-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7월 공급관리협회 뉴욕지수 (22:45)
- 미국, 6월 내구재 · 공장 주문 (23:00)

<5일(수)>

-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17:00)
- 유로존, 6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22:45)
- 미국, 7월 공급관리협회 비제조업 PMI (23:00)

<6일(목)>

- 미국, 7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영국, 영란은행 기준금리 결정 후 의사록 공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 (15:00)

<7일(금)>

- 일본, 6월 가계대출 (08:30)
- 일본, 6월 경기 선행 · 동행지수 (14:00)
- 중국, 7월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중국, 7월 외환보유고 (17:00)
- 미국,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1:30)
- 미국, 도매재고 · 판매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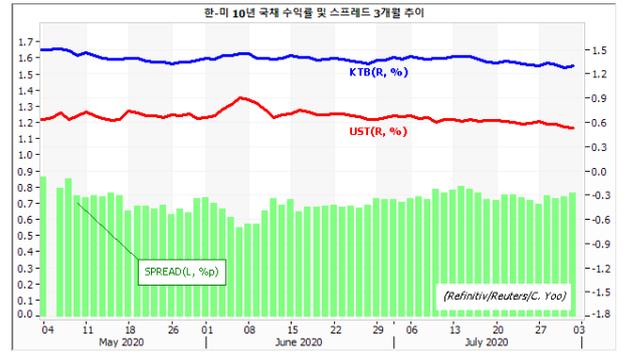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방향을 주로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80-1205 원이다.
-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시장 주요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 이에 따라 이번 주 시장 시선은 글로벌 달러가 약세 추세를 강화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 깊었던 숏 포지션을 되돌리는 조정 양상을 보일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 다만 미국의 경제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하며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달러의 알은 조정 이후 기존의 약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 그간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유로/달러 상승세는 완화될 수 있겠지만 1.2 레벨을 향한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 한편 지난 1일 발표된 7월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 줄어 5개월째 감소했지만,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3억달러로 3개월째 흑자로, 규모도 전달의 36억달러보다 확대됐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심한 타격을 받았던 한국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특히 무역수지가 이전 경로를 회복한 점은 원화 강세를 자극할 재료다.
-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는 중국, 유로존, 미국 등의 7월 제조업 PMI를 비롯해 7월 중국 수출입 및 미국 7월 고용동향 등이다. 한편 한국은 7월 소비자물가와 6월 국제수지 등의 발표가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한 주 공백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된 국고채 입찰과 주중 발표되는 대내외 경제지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제 다시 국고채 입찰이 개시된 만큼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물론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시장을 끌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입찰 공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 이번 주 가장 큰 재료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다.
-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는 지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합의 지연에 따른 증시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7월 말로 종료되는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이 일시적으로 절벽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물론, 언제나 그랬듯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모든 재료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관건이다. 최근의 코로나 19 재확산세를 감안하면 최근까지 흐름과 달리 미국 고용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그래프/분석)-코로나 19 팬데믹이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

런던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정부와 기업 금융에 타격을 줬고 부채를 부풀렸다. 아래의 차트가 보여주듯 이런 현상은 신용 등급 하락을 초래하고 채무 불이행 급증을 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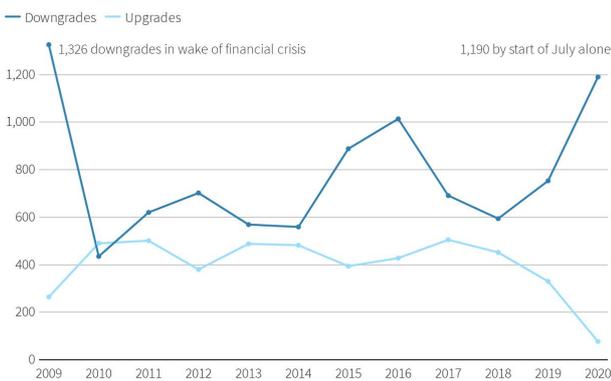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들어 이미 1,190 번 국가·기업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이는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 년 기록한 1,326 번보다 단 136 번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올해는 아직 5 개 월이 남게 남아있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 중 거의 975 번이 코로나 19 판데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유가 하락과 부분적인 관계가 있었다.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경우까지 더하면 총 1,939 번에 달한다.

피치도 신용등급 강등이나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을 올해 들어 약 1,500 번 실시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례는 S&P 의 절반이 안되는 441 번이다.

COVID causing record spike in rating downgrades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ts
Source: S&P Global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코로나 19 판데믹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에너지·석유 기업, 소매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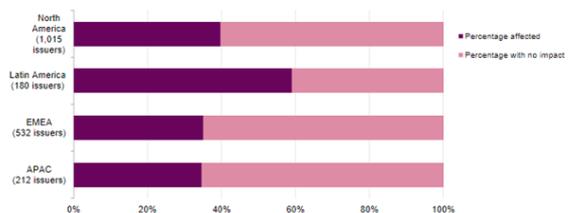
먼트, 항공업, 여행·레저, 은행 그리고 자본재 분야가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다.

S&P 는 북미지역 1,015 개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남미지역에서는 180 번의 강등 조치가 이뤄졌고 이는 지역 전체 등급들 중 60%에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강등 조치가 취해진 비중이 35%에서 40%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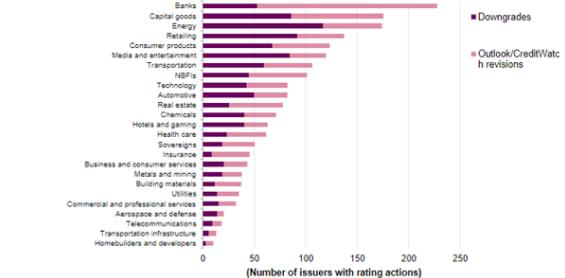
국가들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피치는 위험 등급으로 내려간 이탈리아와 멕시코를 포함 26 개 국가에 대해 32 번의 강등 조치를 취했고 이는 사상 최대치이다. 피치가 등급을 부여한 118 개 국가들 중 3분의 1 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은 상태다.

S&P 는 19 번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고 31 번 등급 전망을 낮췄다. 무디스는 코로나 19 판데믹이 부채 국가들의 부채를 평균 20%P 가까이 높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2 배 더 높은 수치이다.

Regional Breakdown Of Corporate And Sovereign Issuers Affected By COVID-19 And Oil Prices



Sector Breakdown Of Corporate And Sovereign Issuers Affected By COVID-19 And Oil Prices By Action Type



Source: S&P Global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BBB- 이상)을 상실한 기업을 지칭하는 S&P 의 추락천사들의 수는 포드, 롤스 로이스, 크래프트 하인즈, 르노,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그리고 메이시스를 포함 34 개의 달했고 이들의 채권 규모는 3,200 억 달러가 넘는다.

지금까지의 S&P 추락천사들은 모두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무디스는 남아공도 정크등급(Ba1)으로 강등했고 이탈리아, 인도, 콜롬비아, 모로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그리고 멕시코 등이 적어도 한 개의 신용평가사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위기에 처해있다.

투자적격등급을 상실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팔고 더 좋은 신용등급의 회사로 이동할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S&P는 잠재적으로 추락천사가 될 수 있는 126개 기업을 경고하고 있고 그들의 채권은 5,760억 달러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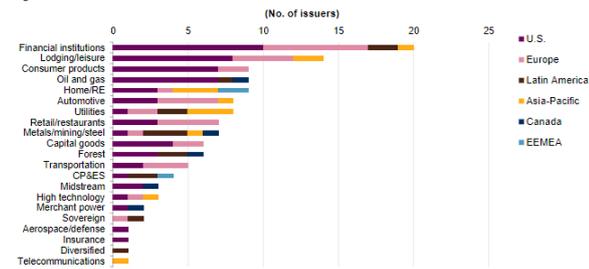
Gulf between potential fallen angels vs rising stars wider than ever



Source: S&P Global Reuters News | Marc Jone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Financial Institutions, Lodging And Leisure Continue To Lead Potential Fallen Angel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피치로부터 '트리플 A' 등급을 빼앗긴 유일한 국가였다. 피치가 'AAA' 등급을 부여한 곳은 단 10 곳으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들 중 10%가 안되는 수치이며 국가 포트폴리오가 공유된 이후 최저치이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트리플 A 등급 국채 비중이 현재 25% 이하라고 추정했다.

AAA Sovereigns



Source: Fitch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P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미국 정크등급 기업들 중 약 290개, 15.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내년 3월까지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무디스는 독일의 와이어카드가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드그룹 이후 처음으로 투자등급기업 중 파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 그리고 수리남은 채무불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 4개 국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도 위기를 겪고 있었다. 피치는 가봉, 모잠비크, 콩고 그리고 잠비아 등을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경고했다.

Sovereign ratings volatility has sur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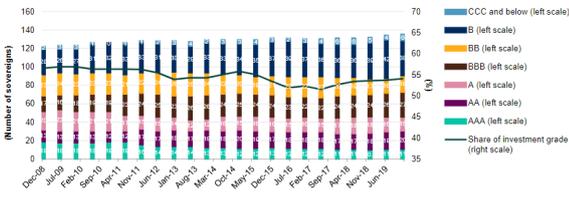
— Global Rating Changes (12m trailing)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
Source: Fitch rating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Global Sovereign Rating Distribution



Copyright © 2020 by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All rights reserved.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FOMC 결과 지켜본 국내 달러들의 고민..'인플레이션' 수준과 타이밍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지켜본 국내 이자율 달러들의 시각은 한결같다. '당분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와 물가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달러는 없다.

다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부정적인 경기 판단 앞에서 혼란을 느끼는 달러들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이 경기의 선행지수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단순히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유동성에 기대 연명하는가는 의문이다.

자산가격의 고공 행진이 단순히 유동성에 힘입은 것이고 결국 부진한 실물경제와의 수렴이 예정돼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에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부각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지 않다.

▲실물·금융시장 괴리, 고민 커지는 달러들

국내 달러들의 고민은 주가에서 시작된다.

처음엔 펀더멘털과 유리된 채 고공 행진하는 주가를 버블의 전조로 치부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조정 시도가 연달아 무산되고 최근 백신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고민이 커졌다.

전염병 사태의 특성상 백신 개발과 함께 코로나 19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각계의 수많은 예측과 달리 코로나 19 확산 진정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오후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유행은 현존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경제 충격"이라며 "미국 경제는 코로나 억제에 달렸고 앞으로 놓인 길은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시장의 기대감과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A 외은 지점 트레이딩헤드는 "주가를 보면 실물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파월 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시장이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듯하다"며 "주가의 선행지수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먼저 추락할지 실물경제가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수용할지 정말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자산가격 수렴 여부,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달려

실물경제가 결국 자산가격과 수렴할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물경제가 실제로 반등해 주가 상승을 합리화하는 경우다. 하지만 연준을 필두로 전 세계 대부분 중앙은행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달러의 입장이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부진을 반영하며 조정받는 경우는 어떨까?

달러들은 인플레이션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이 지적한 대로 인플레이션보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여건이라면 현재의 금융-실물경제 간 괴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실화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각된다면 시장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코로나 19 이전까지는 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논란이 컸다"며 "세계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들과 유통혁신이 그것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논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과감한 재정 투여나 통화정책을 지속할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동안 물가를 끌어내렸던 디플레이션 요인들이 과연 어떻게 메워질 것이냐에 대한 선행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 시중은행 이자율 달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해 신용을 갖춘 개인이나 회사에 돈이 가도록 했고 그게 한정적인 자산 버블로 이어졌다"며 "지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재정지출로 무차별하게 경제의 하단에 돈을 풀고 있는 게 그때와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차별적인 자금 살포로 화폐가치 절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화폐가치 절하 속도가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보다 빠를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동학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초점)-약달러에도 충족되지 않은 원화 강세 조건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 유로화 부상과 함께 달러 패권 균열론까지 거론되며 국제 외환시장이 들쭉거리고 있지만, 원화는 한발 물러선 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지수가 7월에만 4% 넘게 급락했지만, 원화 절상률은 0.1% 수준이다.

유로화 강세가 촉발한 약달러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 중에서 미국과 유럽 등이 이례적인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불신이 함께 맞물리며 달러화 이외 유로화를 비롯한 다른 자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하지만 원화는 이 흐름에서는 한발 비켜선 모습이다.

▲ 충족되지 않은 조건

시장 참가자들은 원화가 달러 약세만을 보고 강제로 내달리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런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A 은행 외환 달러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다"면서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과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실물경기는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마냥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달러는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끄는 자산시장 랠리 근간에는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는데 미국의 10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인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2017년 달러 약세기에 나타났던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공포가 국제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지난 4월 시장의 충격 여파가 여전히 시장 안에서 작동 중이다.

위의 B 은행 달러는 "달러 약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다 무엇보다 지난 4월 경험을 토대로 한 보험성 달러 매수 유인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발간한 '지배적 통화들과 외부 조정(Dominant Currencies and the Limits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의 달러화의 지배력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코로나 19 충격을 더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화가 위안화 블록 통화인 정도 약달러에 적
극 편승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과 중국 간 대립 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원화
와 위안화에 대한 강세 전망이 제한되고 있다는 평
가도 나온다.

HSBC는 최근 이머징 FX 보고서에서 원화 강세 전
제조건으로 위안화 강세, 추가적인 달러 약세, 유의
미한 수출 회복과 외국인 자본 유입 등을 꼽았다.

이 중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7월 초 중국 증시 랠리
에 위안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원화에
대한 영향은 제한됐다"면서 "미-중 긴장에도 위안화
의 일시적인 디커플링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화를
위안화 프록시 통화로 부추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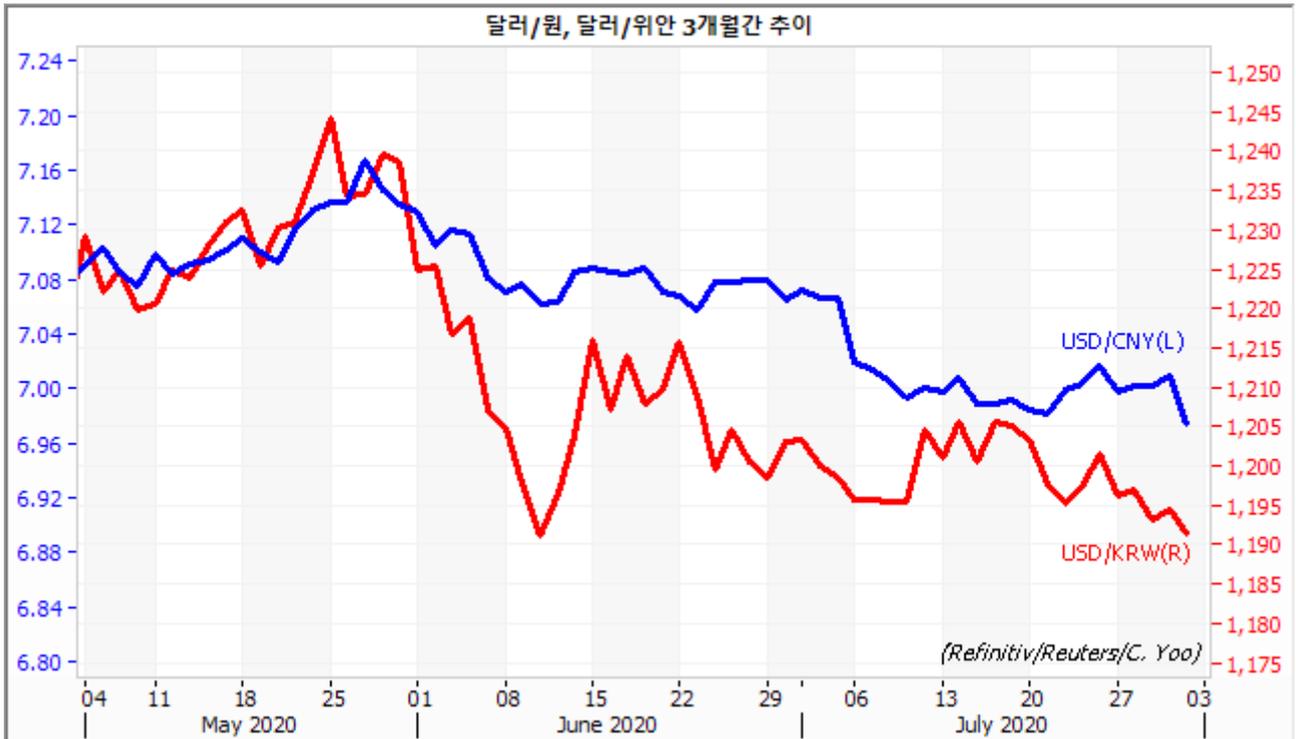
이달 들어서 역외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보험
수준이다.

HSBC는 원화 강세 조건이 올해 안에 모두 충족되
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올해 연말 달러/원 전망치를
당초 1210에서 1185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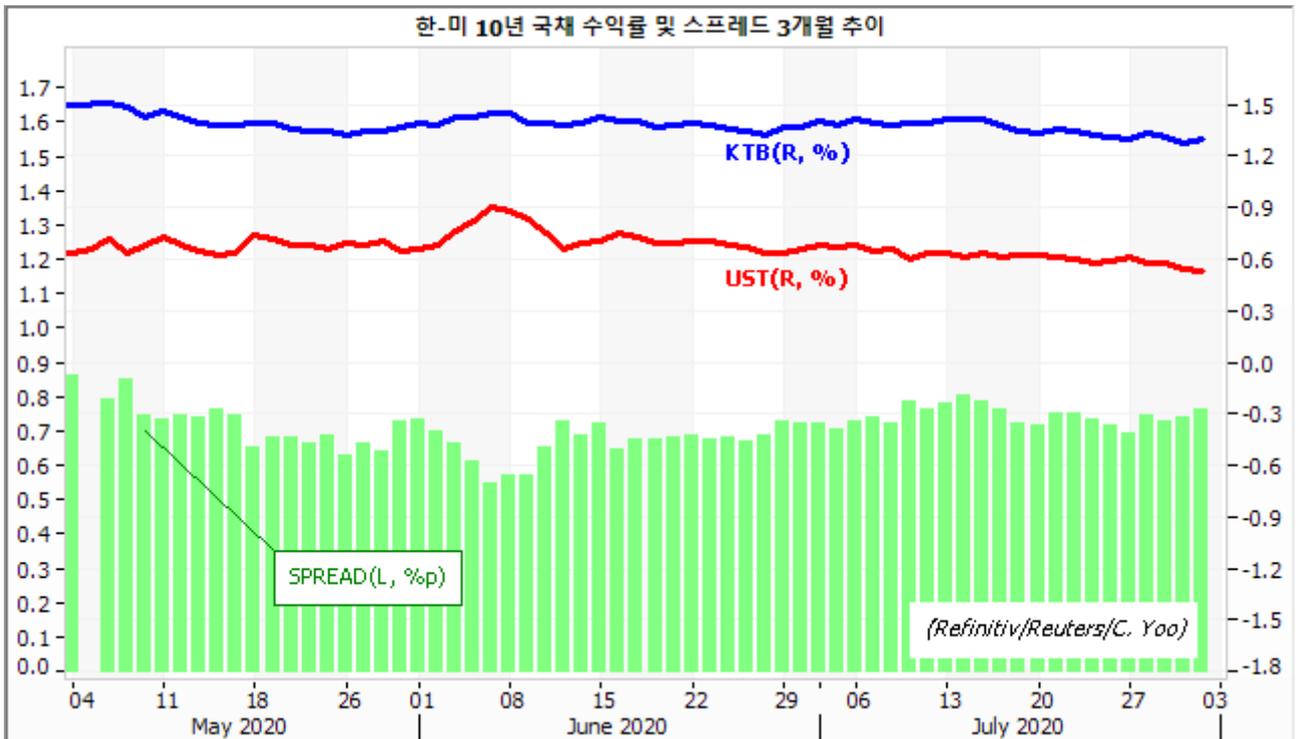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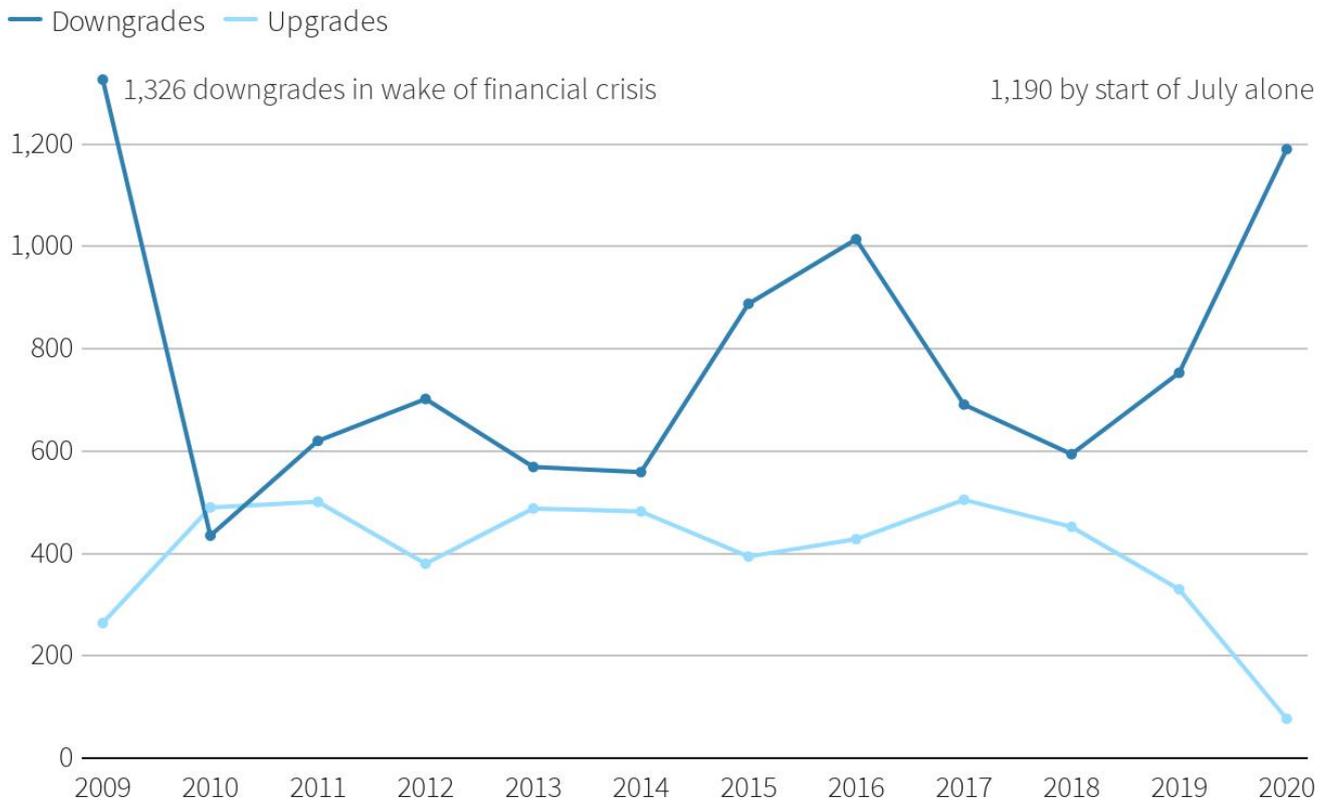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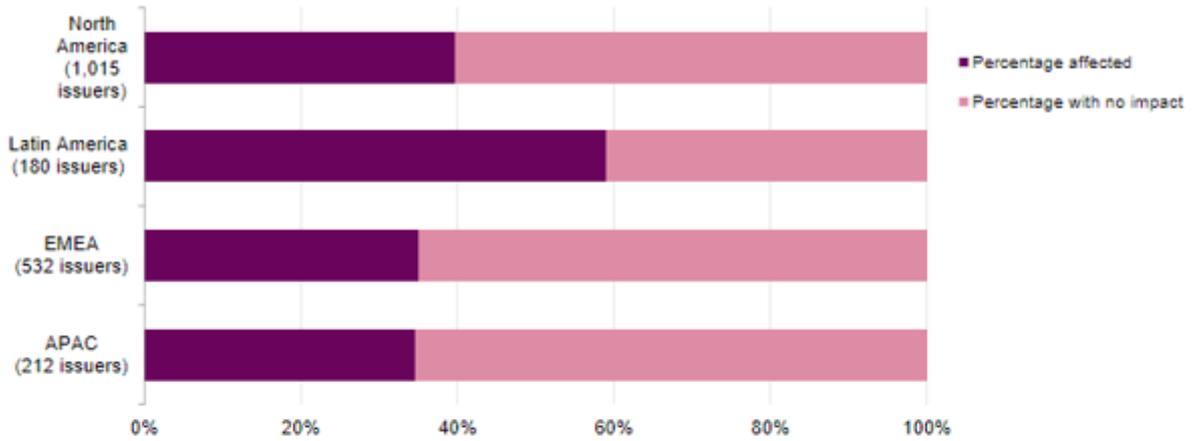
COVID causing record spike in rating downgr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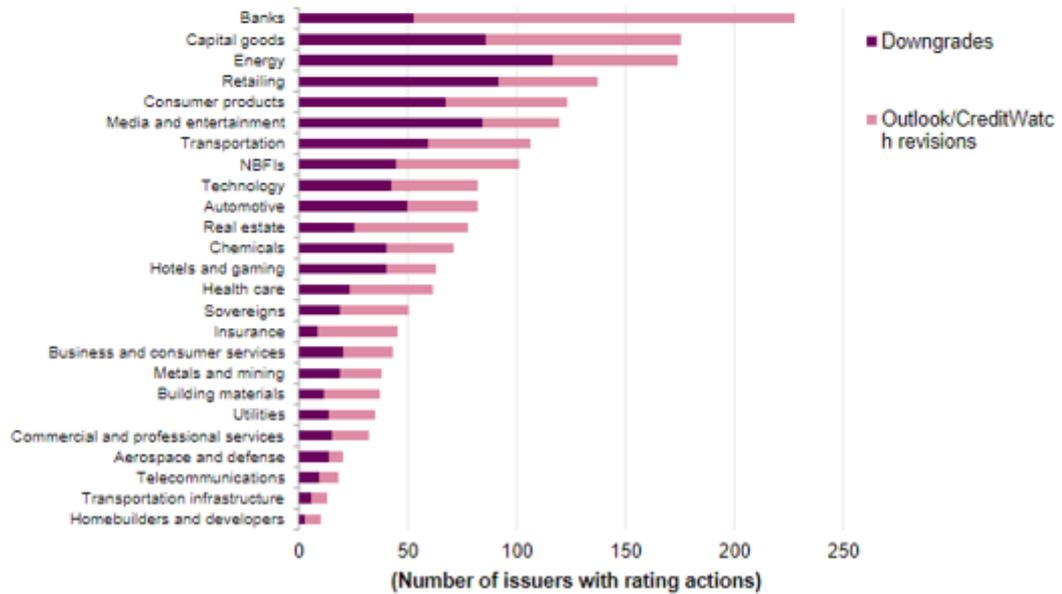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S&P Global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Regional Breakdown Of Corporate And Sovereign Issuers Affected By COVID-19 And Oil Prices



Sector Breakdown Of Corporate And Sovereign Issuers Affected By COVID-19 And Oil Prices By Action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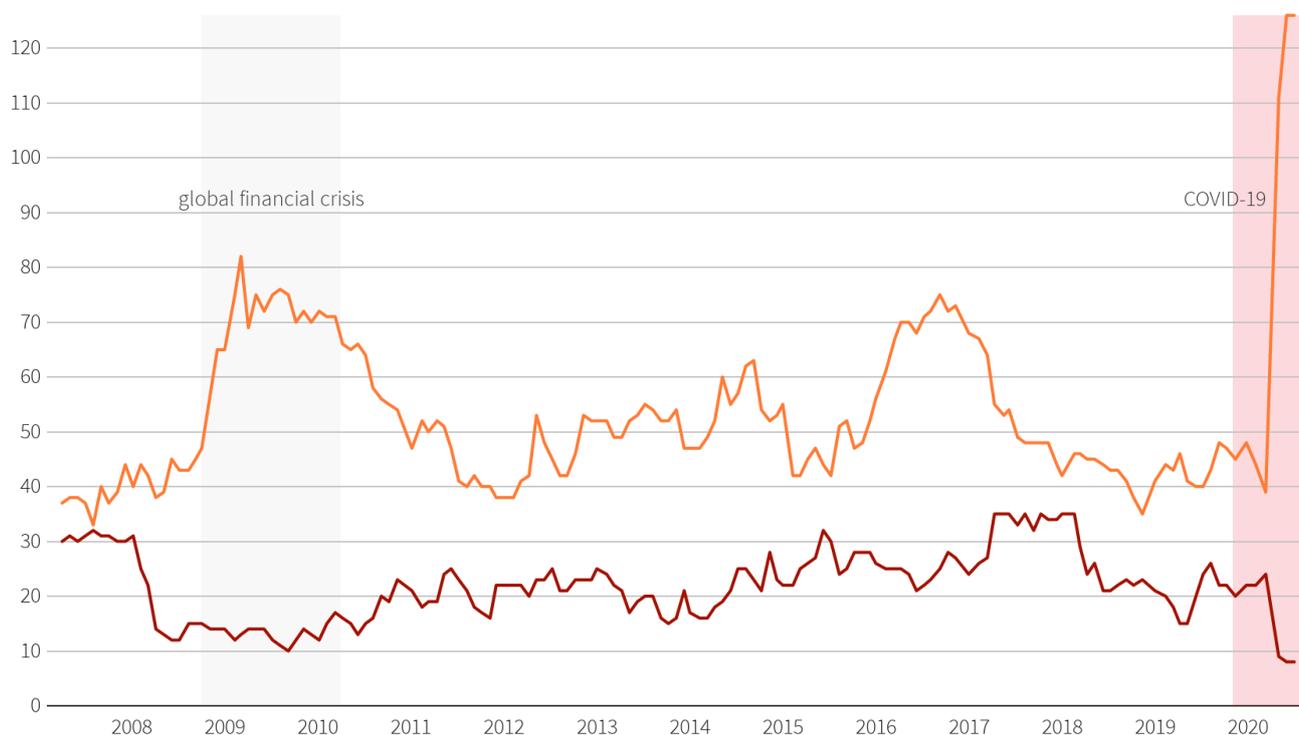


Source: S&P Global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Gulf between potential fallen angels vs rising stars wider than 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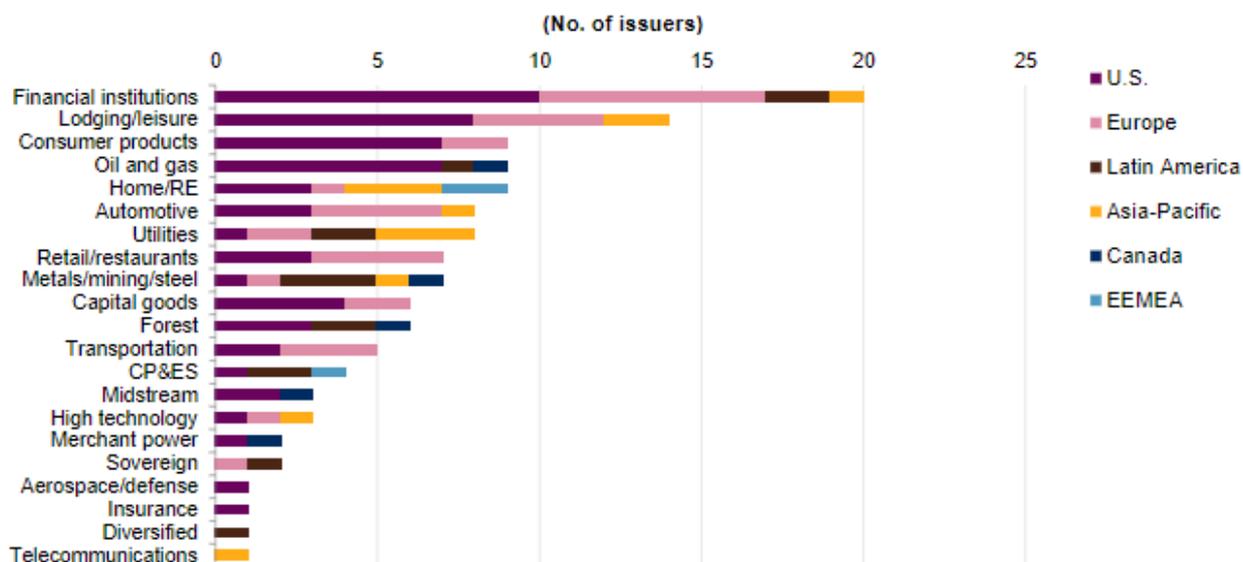
— Potential fallen angels — Potential rising stars



Source: S&P Global Reuters News | Marc 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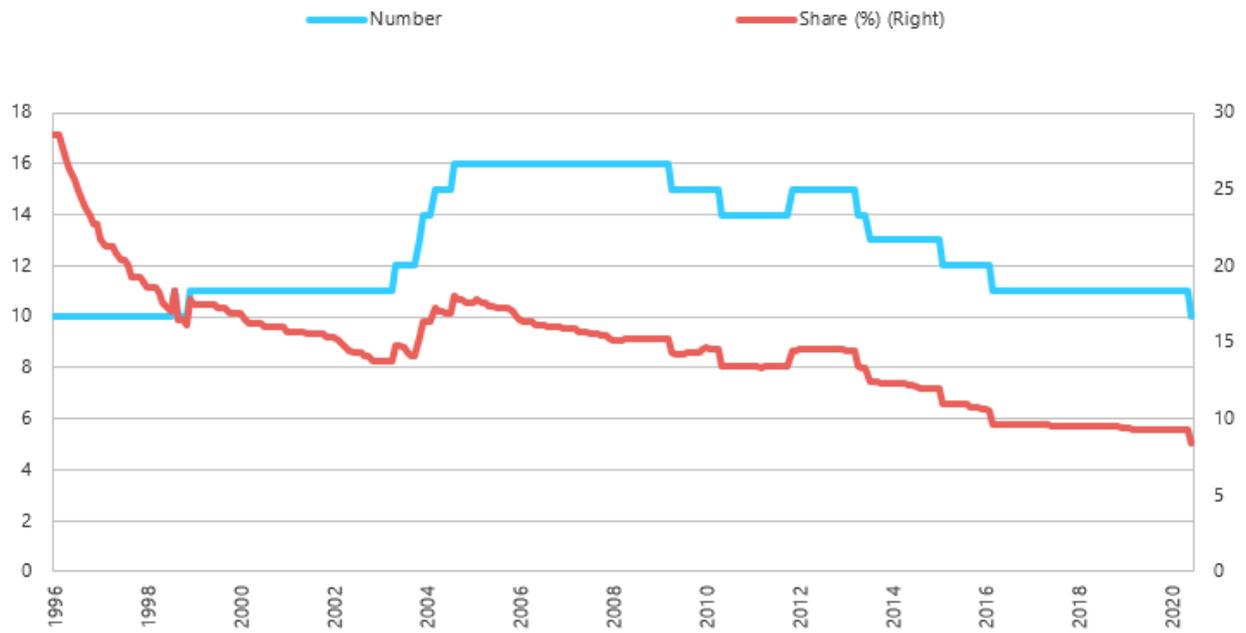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inancial Institutions, Lodging And Leisure Continue To Lead Potential Fallen Angel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AA Sovereigns



Source: Fitch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overeign ratings volatility has surged

— Global Rating Changes (12m tra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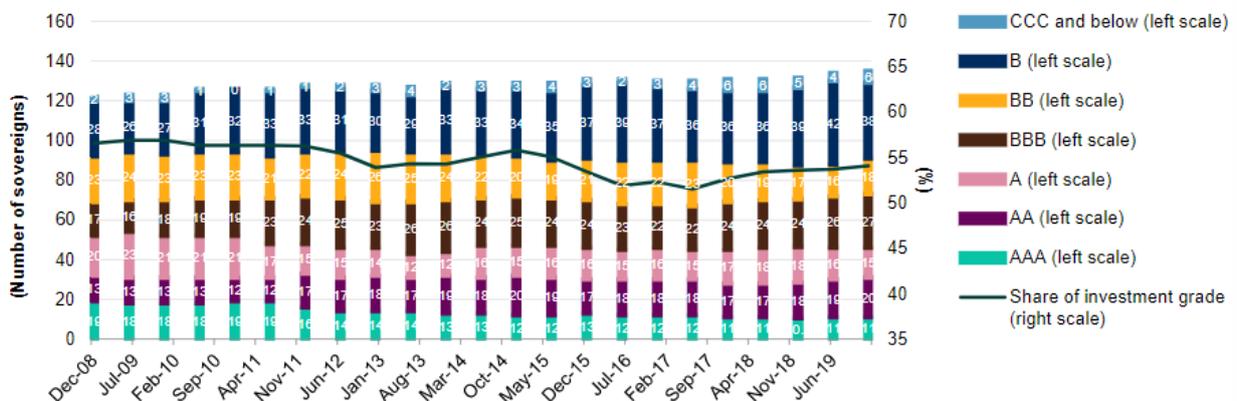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Fitch rating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Global Sovereign Rating Distribution



Copyright © 2020 by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All rights reserved.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